

통합연구 제19권 1호(통권 46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5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안으로서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의 의의와 한계  
박관수 (VIEW/Trinity Western University)

I. 서론

II. 본론

1. 도덕적 위기와 정서주의
2. 정서주의와 자아와 사회
3.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III. 결론

## Abstract

We can figure out that postmodernism is a dominant aspect of today's cultures. Postmodernists commonly suggest non-foundationalism that has brought about two results. The one is denial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truth and the other is making substitution of subjectivism out of the absolute standards for the ethic. I want to argue the latter, Ethical relativism in my writing. I want to figure out how ethical relativism appears in the social context and to suggest what Virtue Theory of MacIntyre is in order to acknowledge that ethical relativism has collapsed social structure and to overcome those results from it.

MacIntyre understands that the reason of prevalent moral crisis in the social context is emotivism. Emotivism means that all moral decision making would be done on the basis of one's own preference of subjective attitudes and emotion. It is likely to deny the objective moral system and to control others to meet one's own purpose by changing moral standards.

MacIntyre diagnoses that emotivism has been dominant aspects of the modern social context and has brought about the moral crisis and the loss of one's own direction. According to MacIntyre, the society of emotivism is composed of three characters that modern cultures have such like, the Rich Aesthete, the Manager, and the Therapist. The Rich Aesthete, the Manager, and the Therapist make modern society that has lost absolutely objective measuring standards to be driven to consumerism and enterprisism. The churches cannot afford to resist this enormous trend and has been drifted along.

MacIntyre points that we cannot acknowledge moral crisis that modern society has faced through Analytic Philosophy, Phenomenology, Existentialism and Deontological Ethics of Kant. Because these kinds of moral systems tried to

define moral rules and the authority of norms on the presupposition of human nature. According to MacIntyre, on the contrast, the moral norms could be constructed in understanding ultimate goals of human that are shown in the context of practices, narratives and traditions. MacIntyre, therefore, suggests Three Steps of Virtue Theory in order to search Virtue Theory of Aristotle an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it. The first step is Practice, Narrative as "narrative orders of individual human life" is second. The last one is Tradition.

It is necessary to accept Virtue Theory of MacIntyre as a tool of overcoming ethical relativism with critical attitudes in order to prevail the Gospel of Christianity efficiently and faithfully in the context of ethical relativism and the culture of consumerism.

주제어 : 덕 윤리, 윤리적 상대주의, 정서주의, 기업주의(사회), 소비주의(사회), 의무론적 윤리, 포스트모더니즘.

Keywords : Virtue Ethics, Ethical Relativism, Emotivism, Enterprisism, Consumerism, Deontological Ethics, Postmodernism,

## I. 서론

현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화는 어떤 상황인가? 현재 우리의 문화를 규정할 수 있는 키 워드는 무엇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비교적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sup>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반토대주의(non-foundationalism)를 공통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진리와 도덕성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진리에 대한 접근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해롤드 브라운(Harold O. J. Brown)은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한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접근법이다.<sup>2)</sup> 둘째, 경험과 관찰과 증명과, 관찰의 방법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sup>3)</sup> 셋째, 이상주의적 접근으로서, 초월적 실재는 신적 계시에 의존하고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실재들은 경험과 관찰의 방법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다.<sup>4)</sup>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접근법을 폐기했다. 그보다는 객관적인 진리나 의미

1) ‘포스트모던’이라는 것이 방의 장식이나 건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의 제작, 실험비디오, 텔레비전 광고, 미술 다큐멘터리나 이들 사이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 패션잡지나 비평전문지의 페이지 디자인, 인식론에 있어서 반목적론적 경향, ‘존재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공격, 감각의 일반적인 약화,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중년의 환멸을 맞이하는 집단적 절망과 병적인 현상, 반성성의 ‘곤경’, 수사학적 형용, 표피성의 증식, 상품 물신주의에서의 새로운 단계, 이미지나 부호, 스타일에 대한 매혹, 문화적, 정치적, 실존적 파편화의 과정과 그 위기, 주체의 ‘탈중심화’, ‘대서사에 대한 불신’, ‘의미의 내파’, 문화적 위계질서의 붕괴, 핵파멸의 공포, 대학의 쇠락,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기능과 영향, ‘미디어’로 향한 사회 경제적 전환, ‘소비주의’와 ‘다국적’ 단계, 터의 상실이나 그 자체의 포기(비판 지역주의) 혹은 일반적으로 시간성의 축 대신 공간성의 축이 대치되는 것에까지 모든 것을 다 일컫는다면, 이것이 분명 대단한 유행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John Storey,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224-225.

2) Harold O. J. Brown, *The sensate culture*, 차성구 역, 감각의 문화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91.

3) *Ibid.*, 92.

4) *Ibid.*, 93.

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이론을 부정함으로 인해 객관적인 영역이 주관성에 대체 될 때, 도덕적 원리들은 증발 하게 된다.<sup>5)</sup> 즉 도덕과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이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진리라고 주장한다. 즉 객관적 진리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성이 폐기된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에 관해서 논의하겠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덕 윤리학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매킨타이어가 현대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한 정서주의( emotivism)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정서주의에서 비롯된 윤리적 상대주의가 현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대의 윤리적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의 붕괴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에 대해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의 의의를 언급하고 기독교적인 덕 윤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지적하겠다.

## II. 본 론

### 도덕적 위기와 정서주의

매킨타이어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공동체와 도덕적 판단의 본질은 보편타당

---

5) Gene Edward Veith, *Postmodern Times : A Christian Guide to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오수미 역,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69.

한 도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sup>6)</sup> 즉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준거가 상실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에서 확인 된다.<sup>7)</sup>

첫째, 개인과 사회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에 대한 계속 되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sup>8)</sup>

둘째, 찬성과 반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불가통약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논쟁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때에도 기본적인 원칙과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과 원칙을 비인격적 합리적 논증으로 내세워지고 또는 비인격적 논증에 적합한 양식으로 제시된다.<sup>9)</sup>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도덕적 위기는 정서주의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정서주의는 “모든 가치 평가적 판단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도덕적 판단은 선호의 표현들, 태도 및 감정의 표현들과 -이들이 본질상 도덕적 또는 가치 평가적인 한에서- 다를 바 없다는 학설이다.”<sup>10)</sup>고 맥킨타이어는 지적한다.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정서주의의 대표자는 스티븐슨(Charles L. Stevenson)이다. 스티븐슨은 정서주의의 세 가지 기초적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1)</sup>

- 
- 6)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14.
  - 7) William K. Frankena, "MacIntyre and Modern Morality", *Ethics*, vol. 93, no3(April, 1983), 580-581.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6-32.
  - 8)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4.
  - 9)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8.
  - 10) *Ibid.*, 32.
  - 11) Charles L.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62), 21.

첫째 모형, “이것은 잘못이다”는 “나는 이것을 부인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를 의미한다.

둘째 모형, “그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나는 그가 이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부인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를 의미한다.

셋째 모형, “이것이 좋다”는 “나는 이것을 승인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를 의미한다.

스티븐슨은 각각의 모형이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좋다와 같은 선언적 진술과 ‘너도 그렇게 해라와 같은 명령적 진술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선언적 진술은 화자의 태도를 묘사하는 것이고 명령적 진술은 청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sup>12)</sup> 스티븐슨은 선언적 진술은 명령적 진술을 충분히 함축한다고 주장하는데,<sup>13)</sup> 이렇게 되면 선언적 진술은 곧 명령적 진술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이것을 승인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티븐슨은 개인적 선호의 표현과 가치 평가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는데, 매킨타이어는 이 점이 정서주의의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한다.<sup>14)</sup>

매킨타이어가 언급한 것처럼, 스티븐슨은 선언적 진술과 명령적 진술을 등식화하여 결국 도덕적 판단은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다. 정서주의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도덕적 진리나 도덕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5)</sup>

## 정서주의의 자아와 사회

정서주의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수단과 목적으로 구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대

---

12) Ibid., 22.

13) Ibid., 22.

14)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34. 프랑케나는 온건한(moderate) 정서주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William K. Frankena,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3), 105-106.

15) Harry J. Gensler, *Eth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4), 59, 68.

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정서주의에 있어서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태도, 선호 등을 우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하고자하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타인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수단일 뿐이다.<sup>16)</sup>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정서주의가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서 결국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고 한다.<sup>17)</sup> 정서주의가 만든 사회는 매킨타이어가 말한 현대 문화의 세 가지 성격(Character)인 부유한 심미주의자(the Rich Aesthete)와 경영자(the Manager), 치료사(the therapist)로 구성되어 있다.

부유한 심미주의자는 세계를 오직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권태를 최대의 적으로 간주한다.<sup>18)</sup> 부유한 심미주의자들은 욕구와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타인을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

경영자의 주된 임무는 그들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경영자는 목표 자체를 평가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목표는 경영자 자신의 지평 바깥에 놓인 것으로 시장이나 주주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sup>20)</sup>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경영자의 모습은 모든 선진 국가들과 특히 미국에서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21)</sup> 경영자들의 관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유한 심미주의자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16)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49-50.

17) *Ibid.*, 47.

18) *Ibid.*, 51.

19)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52.

20) *Ibid.*, 58.

21) *Ibid.*, 54.



치료사의 관심은 “기술 즉 신경증 징후를 통제된 에너지로 그리고 적용하지 못한 개인들을 잘 적응하는 개인들로 전환시키는 효율성”이다.<sup>22)</sup> 즉 이들은 정서주의 사회 시스템과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목표가 외부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자신들의 권한 바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다. 그리고 도덕적 논쟁에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도덕적 충고와 책임을 회피한다.<sup>23)</sup> 오직 측정 가능한 효율성의 문제나 사실과 수단의 영역에만 자신들의 활동을 국한 시킨다.<sup>24)</sup>

이러한 정서주의 문화의 세 가지 성격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자아는 어떤 모습인가?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자아는 “자신의 역할과는 반대로 하나의 역사,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25)</sup> 자아가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도덕적 견해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 이해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정서주의의 자아는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특수한 도덕적 태도 및 관점과 동일시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아의 판단들이 궁극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이렇게 되면 정서주의의 자아가 선택한 도덕적 선택이나 관점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할 수 없다.<sup>28)</sup>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정서주의의 자아는 어떤 필연적 사회적 내용도, 어떤 필연적 사회적 정체성도 갖지 않는 민주적 자아로서 이 자아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

22) Ibid., 58.

23) Stephen Mulhall, 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Basil Blackwell, 1993), 75-76.

24)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58.

25) Ibid., 59.

26) Stephen Mulhall, 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Basil Blackwell, 1993), 76.

27)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59-60

28) Ibid., 60.

한다.<sup>29)</sup> 왜냐하면 이 민주적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30)</sup>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무로서의 자아를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와 고프먼(Erving Goffman)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고 한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자아의 자기 발견은 “자아가 아무 것도 아닌 무라는 사실 즉 자아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려진 가능성의 다발이라는 사실의 발견으로 특징 지워진다.”<sup>31)</sup> 그리고 고프먼에게 있어서 자아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무이다. 왜냐하면 고프먼에게 사회 세계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아는 아무런 사회적 공간도 차지하지 않게 된다고 매킨타이어는 지적한다.<sup>32)</sup>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정서주의의 자아는 “모든 긍정적 기준의 상실”, “추상적이고 유행적인 성격”으로 특징 지워 진다.<sup>33)</sup>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이러한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킨타이어는 현대 사회는 정서주의로 인해 도덕적 혼란에 빠져있지만 분석철학과 현상학이나 실존주의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sup>34)</sup> 매킨타이어는 칸트의 윤리를 공리주의와 정서주의의 윤리와 연관성상에서 파악한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디드로(Denis Diderot)와 흄(David Hume)은 도덕성의 규칙을 인간 본성의 특징인 정념의 성격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칸트도 인간 본성의 특징인 “이성의 어떤 규칙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범주적인 성격”으로 도덕성의 규칙을 설명하려고 했다.<sup>35)</sup> 매킨타이어는 이와 같이 인간본성의 전제로부터 도덕 규칙과 명령의 권위를

29) Ibid., 60.

30) Ibid., 61.

31) Ibid., 61.

32) Ibid., 61.

33) Ibid., 62.

34) Ibid., 18, 45-46.

35)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89. 매킨타이어는 칸트가 도덕성이 “인간 본성에 기초함을” 부인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칸트가 인간 본성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

규정하려는 모든 기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sup>36)</sup>

도덕 규칙과 계율에 관한 개념과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 사이에는 항상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도덕 규칙과 인간 본성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sup>37)</sup> 즉 도덕 규칙은 역사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이와 같이 도덕 규칙을 역사와 문화기운에서 인식하는 경향은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그리고 고전적 도덕성에 관한 유신론적 해석이 지배한 시기에 존재했었다고 한다.<sup>39)</sup> 이처럼 중세까지는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 오다가 계몽주의에 의해 상실된 덕의 개념을 매킨타이어는 다시 부활 하고자 하는 것이다.

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매킨타이어의 *After Virtue*(1984)와 William J. Bennett의 *The Book of Virtues: A Treasury of Great Moral Stories*(1993)으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1994년 뉴스 위크지의 커버를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에는 불과 몇몇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덕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학계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40)</sup>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을 검토하고 그의 덕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 단계의 덕론을 제시한다. 첫째 단계는 실천(*practice*)이고 둘째 단계는 이야기(*narrative*)로서 “개별적 인간 삶의 설화적 질서”이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전통(*tradition*)이다.<sup>41)</sup>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덕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는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36) *Ibid.*, 89.

37) *Ibid.*, 89-90.

38) Stephen Mulhall, 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Basil Blackwell, 1993), 77.

39)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90-91.

40)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6), 5.

41)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6.

덕의 핵심 개념인 실천 이야기, 전통의 논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sup>42)</sup>

매킨타이어는 실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특정한 활동 형식에 적합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 활동형식을 통해 정의된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이 활동형식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이 활동을 통해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힘과 관련된 목표와 선들에 관한 인간의 표상들이 체계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모든 정합적, 복합적 형식을 뜻한다.<sup>43)</sup>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실천에 대한 개념을 라모어(Charles Larmore)는 “참여한 행동에 본래적으로 관련된 성공의 형식을 결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 협동적 인간행동이다”이라고 정리한다.<sup>44)</sup> 이처럼 매킨타이어는 실천을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축구공을 차거나 벽돌을 쌓는 것, 그리고 순무를 심는 것은 실천이 아니지만, 축구경기 자체나 건축, 그리고 농사는 실천이 될 수 있다.<sup>45)</sup>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실천의 규모는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매킨타이어는 인간 공동체의 창조와 유지에 작용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정합적 복합적 행동을 실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 과학, 경기,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정치, 가정생활의 운영과 유지, 등이 실천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sup>46)</sup>

42)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6.

43) *Ibid.*, 277-278.

44) Charles E. Larmore, *Patterns of moral complex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87), 36.

45)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8.

46) *Ibid.*, 278.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실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실천에 외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과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 개념을 사용한다. 매킨타이어는 이것을 장기 경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장기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은 두 종류이다. 그것은 ‘외면적 선’과 ‘내면적 선’이다. 여기서 ‘외면적 선’은 사회적 상황의 우연적 사건들에 의해 실천들과 외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인의 경우 장기 경기를 통해 얻는 특권, 지위, 돈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외면적 선’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한 실천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sup>47)</sup>

반면에 ‘내면적 선’은 장기 경기의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으로서, 이러한 선은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장기 경기나 이런 종류의 다른 경기에 참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선’의 예는 장기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집중력 등을 들 수 있다. ‘내면적 선’은 특정한 실천을 구성하는 행동들과 관련해서만 그 특징이 규정되는 것이다.<sup>48)</sup>

매킨타이어는 ‘외면적 선들’의 특징은,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그 선들은 항상 그 선들을 성취한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면적 선들을 누가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외면적 선들을 소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sup>49)</sup> 반면에 내면적 선들은 이 선의 실천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선이다.<sup>50)</sup> 그리고 이 내면적 선은 덕이 없이는 인식될 수 없고 따라서 덕이 없이는 내면적 선이 수행될 수도 없다.<sup>51)</sup>

덕을 통해 내면적 선에 참여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앞서 실천의 범위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동시에 다양한 실천

47)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9.

48) Charles E. Larmore, *Patterns of moral complex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87), 36.

49)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82.

50) *Ibid.*, 282.

51) *Ibid.*, 289.

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을 초래한다. 한 복종의 의무는 다른 복종의 의무와 상반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생활의 실천에 충실하게 되면 예술의 실천에 소홀해 지기 쉽다.<sup>52)</sup>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의 권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sup>53)</sup>

따라서 매킨타이어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파악된 전체 인간 삶의 목적(telos)에 관한 지배적 개념 없이는 덕들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sup>54)</sup> 매킨타이어는 이것을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 통일성(the 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덕의 두 번째 요소인 내러티브이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동물이다.”<sup>55)</sup> 따라서 매킨타이어는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에 대한 물음 없이는 결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56)</sup> 그리고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매킨타이어는 강조한다.<sup>57)</sup>

이처럼 매킨타이어는 덕을 실천과 관계해서만 아니라 인간의 좋은 삶의 관계 속에서 덕의 개념을 파악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만 선을 실천하게 되면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sup>58)</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킨타이어는 전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

52) Ibid., 297.

53) Ibid., 297.

54)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98.

55) Ibid., 318.

56) Ibid., 318.

57) Ibid., 319.

58) Ibid., 324.

매킨타이어는 개인이 덕을 통한 실천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개인의 삶이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루는- 전통에 의해 정의된 하나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sup>59)</sup> 매킨타이어는 전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역사적으로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논증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전통을 구성하는 선들에 관한 논증이다. 한 전통 속에서 선들의 추구는 대대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를 걸쳐 이어진다.<sup>60)</sup>

개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전통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이 속해 있는 역사적, 사회적 전통을 무시하고 인간이 자신을 이러한 전통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여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칸트의 윤리와 분석 윤리학의 시도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매킨타이어는 지적한다.<sup>61)</sup>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전통 개념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매킨타이어의 전통에 대한 이해는 그의 내러티브 이해 속에서 논리적으로 확장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내러티브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sup>62)</sup> 둘째, 전통이 공동체 안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전통은 사회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셋째, 전통은 반드시 오래 동안 지속된 논증이다.<sup>64)</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덕 개념을 세 개의 단계로 설명한다. 실천, 개별적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 질서, 전통이 그것이다. 매킨타이어에

---

59) Ibid., 328.

60) Ibid., 327.

61) Alasd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327-328.

62) Brad J. Kallenberg, "The Master Argument of MacIntyre's *After Virtue*" *Virtues and Practiecs in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 Ethics after MacIntyre*, Nancey Murphy, Brad J. Kallenberg, and Mark Thiessen Nation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200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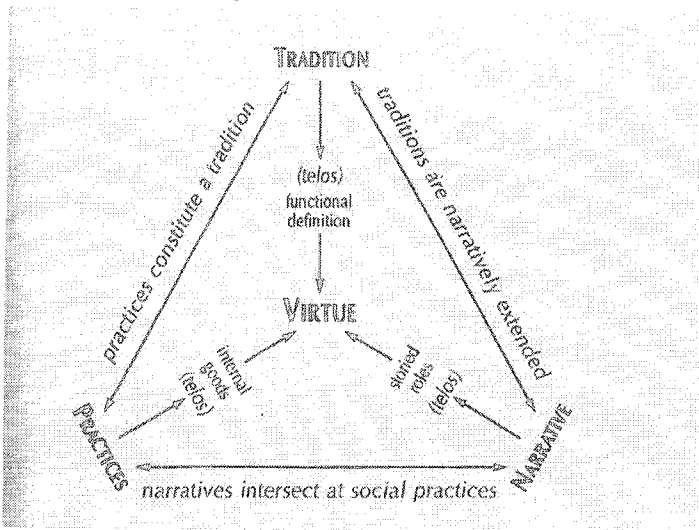
63) Ibid., 25.

64) Ibid., 25.

의하면 각 단계 중에서 나중 단계는 앞 단계를 전제하고 그 역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전 단계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한에서 다음 단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sup>65)</sup>

덕은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덕이 없다면 실천이 성립될 수 있는 내면적인 선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66)</sup> 덕이 없다면 외면적 선만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경쟁은 지배적이고 유일한 특징이 된다.<sup>67)</sup> 이처럼 외면적 선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우세하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덕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sup>68)</sup>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도덕적 규범은 실천들, 내러티브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전통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telos)을 이해함을 통해서 구성된다.<sup>69)</sup> 이와 같은 덕과 덕의 3요소인 실천, 내러티브, 전통과 궁극적 목적과의 관계를 칼렌버그(Brad J. Kallenberg)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70)</sup>



65)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6.

66) *Ibid.*, 283.

67) *Ibid.*, 289.

68) *Ibid.*, 290.



## 정서주의와 소비문화

매킨타이어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도덕적 위기의 원인을 정서주의에서 찾았다. 정서주의는 부유한 심미주의자, 경영자, 치료사에 의해 현대 사회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효과적으로 은폐시킨다.

부유한 심미주의자는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환상과 동경”속에서 부유한 심미주의자의 성향을 추구한다.<sup>71)</sup> 그러나 매킨타이어가 말한 경영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환상과 동경이 아닌 실제로 부유한 심미주의자와 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권태를 피하게 한다. 신용카드 회사(매킨타이어의 표현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부유한 심미주의자가 되도록 마케팅 기법을 구사한다.<sup>72)</sup>

정서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서 기업주의와 소비주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본인이 말하는 기업주의는 사회가 다른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서 기업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지배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주의의 중심세력은 매킨타이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경영자가 된다. 이 경영자는 부유한 심미주의자들의 세계관인 쾌락을 채우고 권태를 피하려는 욕구를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자신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 방위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 기업이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 받고 계속 그 권리를 확대해 나가더니만, 1990년대에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기업의 권리는 더욱 신장되어 법원

---

69) Brad J. Kallenberg, "The Master Argument of MacIntyre's After Virtue" Virtues and Practics in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 Ethics after MacIntyre, Nancey Murphy, Brad J. Kallenberg, and Mark Thiessen Nation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2003), 28.

70) Ibid., 29

71)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51.

72) John de Graaf, David Warn, Thomas Naylor, Affluenza, 박웅희 역, 어플루엔자: 풍요의 시대, 소비중독 바이러스, (서울: 한숲, 2002), 49-50.

에 한 나라를 고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sup>73)</sup> 즉 시장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sup>74)</sup>

다국적 기업의 힘은 경제, 사회, 정치,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위치에 까지 오게 되었다. 국제 통화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1조 2,100억 달러(2001.4)는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일일 거래에 필요한 금액의 20-30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 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해도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정부들이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돈은 140억 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꾼들과 중개인들이 동원하는 자금과 비교 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이다.<sup>75)</sup>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인권과 환경은 무시되며<sup>76)</sup>, 가치와 의미에 대한 물음보다는 오직 실용주의적인 논리만 작용하고 지나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가득 찬 문화를 형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 사회를 어떤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소비는 증독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호화물품들이 순식간에 꼭 필요한 물건이 되고

---

73) Noam Chomsky, Noam Chomsky deux heures de lucidite, 강주현 역,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서울: 시대의 창, 2002), 126.

74) David C. Korten, "브레턴 우즈의 실패" 위대한 전환, Jerry Mander, Edward Goldsmith 편저, (서울: 동아일보사, 2001), 45.

‘소비와 광고와 기업의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련에서는 반정부 발언이 금지되었으나, 오늘날 북미에서는 광고주에 반대하는 발언이 불가능하다’는 라슨(Kalle Lasn)의 말은 기업과 그것을 지배하는 광고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보여준다. Jay Walljasper, Jon Spayde, Visionaries, 원재길 역, 틱낫한에서 촘스키까지 (서울: 마음산책, 2004), 443.

75) Ibid., 47. 2001년 4월의 통계는 이 책의 번역자가 첨가한 내용을 인용했다.

76) Noam Chomsky, Noam Chomsky deux heures de lucidite, 강주현 역,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서울: 시대의 창, 2002), 59. 더닝은 소비사회의 극복이라는 책에서 소비문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소비주의 사회는 인간과 환경을 파괴한다. Alan Thein Durning, How Much Is Enough?, 구자건 역, 소비사회의 극복: 현대 소비사회와 지구환경 위기 (서울: 따님, 2000).

다시 새로운 사치품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 중독 바이러스에 걸린 증상이다.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나 근래의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비교 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 중독 바이러스는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언급한 기업주의와 발전과 풍요라는 미명하에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장려하기 때문이다. 이 소비 중독 바이러스는 “어플루엔자(Affluenza)”로 불려지고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sup>77)</sup>

이러한 소비 중독바이러스는 기업주의와 쾌락과 성장주의(매킨타이어의 표현에 의하면 부유한 심미가와 경영자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주의는 교육에도 그 발을 뻗고 있다. 얼마 전 삼성에서는 신입사원 선발 시 특정학교의 전공에 대해 가산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던 교육의 직업훈련소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기업에 봉사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표로 간주되는 교육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점점 기업주의와 소비주의 사회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여기에 거부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매장 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자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매킨타이어의 표현대로 정서주의 자아는 어떤 모습인가?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는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언어나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

77) John de Graaf, David Wann, Thomas Naylor, *Affluenza*, 박용희 역, *어플루엔자: 풍요의 시대, 소비중독 바이러스* (서울: 한숲, 2002), 20.

보다는 소비를 통하여 사람은 사물과 집단과 세계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소비가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는 적극적인 관계양식이라고 주장한다.<sup>78)</sup>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 직장, 그 밖의 다양한 공동체나 학교를 통하여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여 산다. 이것은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만족, 혹은 행복, 권력과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며 노력한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정과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기 보다는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은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고,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세탁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 후자야말로 소비의 고유한 영역이다.”<sup>79)</sup> 결국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소비를 통하여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자, 이 소비가 “문화체계 전체가 근거하고 있는 체계적 활동과 반응의 양식”이다.<sup>80)</sup>

이러한 소비주의 사회는 단순히 산업사회나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매킨타이어의 주장대로 정서주의에서 비롯된<sup>81)</sup>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로킨(Fitirim A. Sorokin)은 현대 사회의 문화가 쾌락과 소비에 치달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다면, 신이나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계약의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78) Jean Baudrillard, *Le systeme des objets*, 배영달 역, 사물의 체계, (서울: 백의, 1999), 299.

79) Jean Baurd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3), 9.

80) Jean Baudrillard, *Le systeme des objets*, 배영달 역, 사물의 체계, (서울: 백의, 1999), 299.

81) 물론 윤리적 상대주의나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매킨타이어의 주장대로 오직 정서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면, 그리고 쾌락과 감각적인 가치에 대한 열망이 절정에 달했다면,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오직 사람의 욕망과 정욕만이 그를 지배할 것이다.<sup>82)</sup>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도덕성의 거부는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했다.<sup>83)</sup> 이것은 감각적인 가치와 쾌락을 추구하고 권태에 대한 병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며 계속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이미 정신은 죽었기 때문이다.<sup>84)</sup>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단계는 인간을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sup>85)</sup>

이러한 자아가 모여 사는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소비를 위해 존재하며, ‘쇼핑한다 고로 존재하는 자아, 아메바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B.C 80년에 살루스트(Sallust)가 로마의 멸망에 대해 묘사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부유층에 의해 움직이고 지배층은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에 무감각하다. 대중은 전자 경주라든지 검투사들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다.<sup>86)</sup>

---

82) Pitirim A. Sorokin, *The Crisis of Our Age* (Oxford: Oneworld, 1992), 168.

83) Morris Berman, *The Twilight of American Culture*, 심현식 역, 미국 문화의 몰락, (서울: 황금가지, 2002), 67.

84) Morris Berman, *The Twilight of American Culture*, 심현식 역, 미국 문화의 몰락, (서울: 황금가지, 2002), 65. 모리스 버만은 기업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나타난 정신의 죽음을 미국 교육의 우민화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85) Fredic Jameson, *Signatures of the visible* (New York, 1992), 1.

86) Morris Berman, *The Twilight of American Culture*, 심현식 역, 미국 문화의 몰락, (서울: 황금가지, 2002), 15. 재인용.

‘전차 경주’나 ‘검투사들의 싸움’은 현대적인 형태로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로마인들을 무너뜨린 요소에 소비중독 바이러스를 첨가 시켰다.

### III. 결 론

이와 같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정서주의는 매킨타이어가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하여 사회를 붕괴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서주의의 두 날개인 기업주의와 소비주의는 교회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독교는 기업이 사회를 소비주의 사회로 만드는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교회의 성장은 복음에 얼마나 충실 했냐 보다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을 성장의 척도로 사용하여 건물의 크기와 성도 수의 증가로 간주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성장을 원수하기 위해 복음을 마케팅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맥도날드화된 기독교’이다. ‘맥도날드화’란 용어는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맥도날드화된 사회’라는 용어를 1993년에 리처(George Ritzer)가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원리에 맥도날드의 운영 방침이 반영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sup>87)</sup> 그런데 드레인(John Drane)이 2000년에 맥도날드의 운영 원리가 미국사회에만 지배적인 원리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교회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맥도날드화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88)</sup>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미국

---

87) George Ritzer,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1993).

88) John Drane, *The McDonaldization of Church: Spirituality, Creativity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London: Longman & Todd, 2000).

사회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한 패스트푸드 회사의 경영 전략의 방법에 의해 설정되는 상황이 교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는 기독교 윤리를 효과적으로 현대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윤리는 윤리의 궁극적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둔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윤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윤리를 내세우는 기독교 윤리를 윤리적 상대주의가 만연된 문화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대면 할 수 있는가? 윤리적 상대주의에 비교적 공유된 단어와 영역에서 이미 싸움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린 도덕 개념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면<sup>89)</sup> 윤리적 상대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개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킨타이어의 전통개념은 계몽주의의 주장이 환상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었다.<sup>90)</sup>

매킨타이어가 지적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개념에 대한 비판을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고수해 왔던 의무론적 윤리에 대한 대안을

---

89) 물론 현대 사회에 나타난 윤리적·문화적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견해와 매킨타이어의 진단이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출발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지식의 출발점과 준거점을 두는 사상과 행위는 결국 혼란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뉴비긴의 주장은 기독교의 견해를 대변한다. *Lesslie Newbigin,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England: Trinity, 1995), 14.*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앞서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의 윤리적 혼란의 원인을 정서주의와 인간의 자아를 전통과 독립된 것으로 인식한 것에 둔다.

90) 개인을 전통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여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칸트의 윤리와 분석 윤리학의 시도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매킨타이어는 지적한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327-328. 뉴비긴도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뉴비긴은 전통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전통에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관찰과 이성을 통해 완전한 지식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Lesslie Newbigin,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England: Trinity, 1995), 16-17.*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정서주의나 공리주의 윤리뿐만 아니라 의무론적 윤리도 동일하게 인간의 삶과 전통 그리고 역사성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채로 도덕을 논의하는 계몽주의적 윤리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로서, 매킨타이어의 덕 개념을 기독교 윤리학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스탠리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에서 볼 수 있다. 그는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1981)에서 매킨타이어의 사상을 자신의 인식론에 적용하여 내러티브 윤리학과 공동체 윤리학을 표방하고 있다. 그밖에도 L. Gregory Jones의 *Transformed Judgment: Toward a Trinitarian Account of the Moral Life*(1990), James F. Keenan의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1992), Gilbert C. Meilaender의 *The Theory and Practice of Virtue*(1984), Jean Porter의 *The Recovery of Virtue: The Relevance of Aquinas for Christian Ethics*(1990), Paul J. Wadell의 *Friendship and the Moral Life*(1989)등의 저서들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과 일반적인 의미의 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sup>91)</sup> 성경은 의무 윤리에 가까운가, 아니면 덕 윤리에 가까운가? 우선 덕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덕의 개념은 근대 이전까지 있었던 지배적인 윤리 개념이었다.<sup>92)</sup> 덕

---

91) 매킨타이어는 신약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믿음, 소망, 사랑 매우 중요한 덕으로 여기며,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네시스와 같은 덕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경의 덕과 자신의 덕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270.

그러나 신약 성경의 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매킨타이어는 지적한다. 성경의 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동일한 논리적,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실천이 인간적 telos의 성취를 가져오며 여기에는 자연적인 선과 초자연적인 선이 포함된다는 점과 telos와 덕의 관계가 외면적이지 않고 내면적이라는 점을 매킨타이어는 언급한다.(273) 심지어 Brown는 “잠언의 중대한 목적중 하나는 실천적 지혜의 발전을 돕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된 덕으로 정의한 것을 장려하고 개발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William Brown,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14.



(Virtue)의 어원은 그리스어 arete이고 이 뜻은 탁월함(excellence)을 의미한다.<sup>93)</sup>

그러나 이 의미가 사람에게만 쓰인 것은 아니다. '칼의 덕', '집의 덕'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경우 덕은 '아주 잘 잘리는 칼', '편안하게 살기 좋은 집'의 의미이다. 즉 이것은 모든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덕의 의미이다.<sup>94)</sup> 따라서 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홀즈(Arthur Holmes)는 성경에서 도덕적 덕은 행동의 규칙에 중점을 두는 의무 윤리 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95)</sup> 의무윤리는 인간의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삶은 도덕적인 원리나 규범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 했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행동은 그 결과나 과정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96)</sup> 반면에 덕 윤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덕 윤리는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다양한 복에 대한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등은 어떤 규칙과 규범을 말하기 보다는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울이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을 경주로 표현한 것 성경의 열매는 모두 덕이다.<sup>97)</sup>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도덕적 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존재의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중 하나이며,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

92) Arthur F. Holmes, *Ethics: Approaching Moral Decisions* (IL: IVP, 1984), 116. 매킨타이어는 둔스 스코투스 이전 까지는 덕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Alasdair MacIntyre,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Inqui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90), 152-157.

93) Kyle D. Fedler, *Exploring Christian Ethics: Biblical Foundations for Mor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34.

94) *Ibid.*, 35.

95) Arthur F. Holmes, *Ethics: Approaching Moral Decisions* (IL: IVP, 1984), 116.

96) Kyle D. Fedler, *Exploring Christian Ethics: Biblical Foundations for Mor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18.

97) Arthur F. Holmes, *Ethics: Approaching Moral Decisions* (IL: IVP, 1984), 116.

나이다.<sup>98)</sup>

코트마(Joseph J. Kotva)는 성화와 개인적 종말론, 기독교론과 덕과의 관계를 살펴본 뒤에, 덕 개념은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의를 좀 더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한다.<sup>99)</sup>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덕 윤리학자로 지적되는 하우어와스의 사상에는 그가 받아들이는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생략하고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sup>100)</sup> 이에 비하면 코트마의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코트마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와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와 신학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와 본문이 어떻게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독자적인 덕 윤리의 이론적인 모델과 실천을 현대 사회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성경과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덕 이론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태면,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가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론이 결여 되었다. 여기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인 기독교적인 종말론을 포함시켜 기독교적인 덕 윤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 등의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기독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 사회에 민연된 윤리적 상대주의와 이에 따른 소비주의와 기업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독교적인 덕 윤리가 구현되는 공동체의 모델로서 교회가 역할을 담당해야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98) W. Jay Wood, *Epistemology: Becoming Intellectually Virtuous* (IL: IVP, 1998), 19.

99)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6), 69-102.

100) *Ibid.*, 50.

## 참고 문헌

- Baudrillard, Jean.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3.
- Baudrillard, Jean. *Le systeme des objets*, 배영달 역, 사물의 체계. 서울: 백의, 1999.
- Berman, Morris. *The Twilight of American Culture*, 심현식 역, 미국 문화의 몰락. 서울: 황금가지, 2002.
- Brown, Harold O. J. *The sensate culture*, 차성구 역, 감각의 문화.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 Brown, Willian.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Chomsky, Noam. *Noam Chomsky deux heures de lucidite*, 강주현 역,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서울: 시대의 창, 2002.
- Drane, John. *The McDonaldization of Church: Spirituality, Creativity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London: Longman & Todd, 2000.
- Durning, Alan Thein. *How Much Is Enough?*, 구자건 역, 소비사회의 극복: 현대 소비사회와 지구환경 위기. 서울: 따님, 2000.
- Fedler, Kyle D. *Exploring Christian Ethics: Biblical Foundations for Mor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 Frankena, William K. "MacIntyre and Modern Morlity", *Ethics*, vol. 93, no3. April, 1983.
- Frankena, William K.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3.
- Gensler, Harry J. *Eth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4.
- Graaf, John de. Wann, David. and Naylor, Thomas. *Affluenza*, 박웅희 역, 이플루엔자: 풍요의 시대, 소비중독 바이러스. 서울: 한숲, 2002.
- Holmes, Arthur F. *Ethics: Approaching Moral Decisions*. IL: IVP, 1984.
- Jameson, Fredic. *Signatures of the visible*. New York, 1992.
- Kallenberg, Brad J. "The Master Argument of MacIntyre's After Virtue" *Virtues and*

- Practices in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 Ethics after MacIntyre, Murphy, Nancey. Kallenberg, Brad J. and Nation, Mark Thiessen.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2003.
- Korten, David C. "브레턴 우즈의 실패" 위대한 전환. Mander, Jerry. Goldsmith, Edward. ed. 서울: 동아일보사, 2001.
- Kotva, Joseph J.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6.
- Lamore, Charles E. Patterns of moral complex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87.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MacIntyre, Alasdair.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Inqui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90.
- Mulhall, Stephen. Swift, Adam.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Basil Blackwell, 1993.
- Newbigin, Lesslie.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England: Trinity, 1995.
- Ritzer, George.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al Lif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1993.
- Sorokin, Pitirim A. The Crisis of Our Age. Oxford: Oneworld, 1992.
- Stevenson, Charles L.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62.
- Storey, John.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Veith, Gene Edward. Postmodern Times: A Christian Guide to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오수미 역,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Walljasper, Jay. Spayde, Jon. Visionaries, 원재길 역, 틱낫한에서 촛스키까지. 서울: 마음산책, 2004.
- Wood, W. Jay. Epistemology: Becoming Intellectually Virtuous. IL: IVP, 1998.

---

박관수

안양대 신학과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캐나다 VIEW/ Trinity Western University에서 연구중.